

13. 한국어-일본어: 형태적-구문적 유사성과 어휘적-음운적 상이성

Motivational Episode

일본열도와 영국열도의 비교

영국열도 사람들은 선사시대에 미지의 원주민 언어로부터 켈트 언어로의 전환을 경험했고, 유사시대 초기에 로마제국의 식민지 단계를 거쳐, 다시 켈트어에서 게르만어로 언어적 전환을 경험했다. 그 후, 앵글로-색슨 영어는 노어만 정복에 수반한 로맨스 언어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었다.

기원전 4-5세기경, 프랑스 쪽으로부터 켈트족이 몰려오고; 기원 전후로 로마 제국의 침공을 받아 그 식민지가 되고; 5세기말, 라인강 하구 주변에 살던 앵글-색슨 족이 몰려와 점령을 하고; 스칸디나비아 바이킹들은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와 약탈을 계속 하고; 급기야 11세기에는 노어만 프렌취에게 정복을 당한다. 잉글리쉬 단어들을 보면, 프렌취 계통, 이탈리아 라틴 계통, 저어만 계통, 스칸디나비아 계통 단어들이 뒤섞여 있다. 앵글로-색슨 잉글리쉬라 하지만 오히려 고대 저어만 어휘에 그 근원을 추적 할 수 있는 단어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별로 많지가 않다. 물론 크게 보면 이들 모두가 다 인도-유럽어 피안 계통의 단어들이지만, 좀더 분류를 해 본다면 북부 저어머닉 계통과 남부 로맨스 계통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고대 라틴어가 프렌취, 스페니쉬, 포오츠키어, 이탈리아어로 나뉘면서 로맨스 언어를 구성한다.) 그런데 잉글리쉬의 문법체계의 본질은, 아주 단순하게 변형된 저어만 문법이다. 정복자의 노어만 프렌취가 공용어로 사용된 (1066-1362) 300여 년 간, 잉글리쉬는 무식한 앵글로-색슨 농민들만 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복잡한 저어만 문법체계가 아주 무식하게 단순화 된 것 같다.

현대 한국어와 현대 일본어의 문장구조(語順)가 거의 똑 같은데 비해, 현대 저어만과 현대 앵글로-색슨 잉글리쉬의 문장구조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 아마도 그 이유는, 야요이 일본열도에 정착한 한반도 변한(가야) 사람들을 4세기 말에 정복한 것이 바로 한반도의 백제 사람들인데 비해, 5세기에 잉글랜드에 정착한 앵글로-색슨 저어만 족을 11세기에 정복한 것이, 당시의 저어만 족이 아니라, 로맨스 계통의 언어를 구사하는 노어만 프렌취 이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정복자 윌리엄이 (프랑스화한 대니쉬 바이킹이 아니라) 당시의 저어만 이었다면, 현대 저어만과 현대 앵글로-색슨 잉글리쉬의 문장구조가 똑같았을 것이다.

1066년에 영국을 정복한 노어만들은, 1204년 잔 왕 때 이르러, 자신들의 본거

지인 노어만디를 파리의 필립 왕에게 빼앗기었다. 1236년에 헨리 왕이 프랑스 왕실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된 시기를 전후로, 새삼 프랑스어의 영향이 일시적으로 커졌으나, 결국은 백년전쟁(1337-1453년)이 시작되기도 전에 프랑스와의 적대관계가 심화되었다.

중세 프랑스어는 4개의 주요 방언이 있었다. 즉, 중부의 파리 프렌취, 동부의 버어건디 프렌취, 북동부의 피카아드 프렌취, 그리고 노어만 프렌취 등이었다. 13세기경, 파리에 본거지를 둔 프랑스가 강대해지자, 중부의 파리 프렌취가 지배적인 언어가 되었다. (한반도의 서라벌 말과 이탈리아 반도의 Latium 말이 지배적인 언어로 바뀌는 과정에 비교 해 볼 수 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어휘나 억양에서, 잉글리쉬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영국 지배층의 노어만 프렌취는, 프랑스 땅에서 제대로 대접을 받을 수가 없었다. 부끄럽게 생각한 영국의 일부 노어만 귀족들은, 촌사람 취급을 받지 않기 위해, 자식들을 파리에 보내 “표준” 프렌취를 배우게 했다.

노어만디의 본거지를 완전히 상실한 후, 자신들의 운명을 잉글랜드와 함께 할 수밖에 없게 된 노어만 정복자들은 잉글리쉬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고, 급기야 잉글리쉬가 1362년경에 공용어가 되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초오서(1340?-1400)와 웨익스피어(1564-1616) 등이 나타나서, 이미 다양한 어휘를 구사하는 잉글리쉬의 품격을 한층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5세기부터 11세기 전반까지 사용되었던 잉글리쉬를, 초오서 이후, 혹은 웨익스피어 이후의 잉글리쉬와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스칸디내비안 바이킹, 저어먼, 프렌취, 이탈리아 라틴 등 다양한 문화의 풍부한 어휘가, (무식하게?) 단순화된 문법체계와 어울려 영문학의 황금시대를 가져오고, 급기야 21세기 전 인류의 공통어로서의 역할을 논하게까지 되었다.

프랑스화한 대니쉬 바이킹인 노어만 족이 앵글로-색슨의 잉글랜드를 정복한 것과는 달리, 원 일본어를 사용하는 원 일본인을 정복한 것은, 똑같은 알타이 계통 언어를 사용하는 백제 사람들이었다. 그 결과는 로맨스 언어의 맹공격을 받고 살아남은 게르만 계통 언어의 경우와 매우 달랐다. 일본열도의 언어 무대에 등장한 것은 동일한 알타이 계통 언어 형태의 새로운 물결이었다. 알타이 원 일본어 위에 새로운 알타이 언어 층이 다시 한번 덮어 씌어진 것이다. (알타이 계통 언어라는 표현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은 “알타이”란 표현을 “통구스”로 바꾸어도 된다.) 이 사실은 현대 한국어와 현대 일본어 사이에서, 현대 영어와 현대 독일어 사이에서 볼 수 없는, 어휘-대-어휘 그대로 번역이 가능한 현상을 설명해 준다. 반면, 현대 잉글리쉬와 현대 저어먼의 문장구조는 상

이한 점이 적지 않다. 앵글로-색슨 잉글랜드가 저어먼이 아니라 노어만 프렌취에 의해 정복 된데 반해, 야요이 일본 열도는 백제인들에 의해 정복되었다는 사실에서 그 설명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 일본인(原日本人)과 원 일본어(原日本語)

조몽 사람들이 야요이 사람으로 진화하여 마침내 현대 일본인을 형성했다는 이론은, 1990년대에 들어와, 현대 생물인류학에 의해 산산이 부서졌다. "형질인류학과 분자 유전학에서 계속 나오는 대량의 자료들은 조몽-아이누-류큐 사람들이 유전적으로 야요이 시대와 현대의 혼슈 사람들과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¹ 골격의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고대 조몽 사람들은 혼슈 사람들보다는 현대의 아이누, 류큐 사람들과 유사하며, 혼슈 사람들은 동북 아시아 사람들과 훨씬 더 가깝다.² 계통 발생론적 분석에 의하면 일본의 혼슈 사람과 한국 사람 사이에 가장 유사한 유전적 친근성이 나타나며, 일본 사람들 유전 인자의 65% 정도가 한국 사람에게서 유래되었음을 시사한다.³

조몽인과 야요이 사람의 골격 구조는 쉽게 구분이 된다.⁴ "현대 일본인을 형질

¹ Unger (2001: 95) 인용.

² Imamura (1996: 209) 인용. 일본 학자들은 의당 "한반도"라는 표현을 써야 할 장소에 한사코 "동북 아시아"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³ Horai and Omoto (1998) 참조. Ono(1962: 21)는 혈액형의 분석 결과를 근거로, "한반도 남부로부터 건너온 이주민이 야요이 문화에 영향을 미친 것은 명백하지만, 이주민들의 수가 토착민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거나 혹은 원주민들을 완전히 말살시킬 정도로 많은 수가 건너온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가야에서 비교적 적은 수의 농부들이 건너와 정착한 후, 수렵과 채취를 하던 조몽 사람들보다 빠른 속도로 증식을 한 결과, 마침내는 그들보다 수적으로 크게 앞서게 되었다는 것이다. Hudson(1999: 81)은 한반도에서 건너온 야요이 이주민들이 조몽 사람들 전부를 대체한 것은 아니지만, 조몽 사람들이 현재의 일본인에게 유전적으로 미친 영향은 1/4이 안될 것이라고 말한다.

⁴ Barnes에 의하면, 서부 일본 야요이 유적지에서 발굴된 골격은 분명하게 토착 조몽 골격 유전자형과 한반도식 골격 등,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조몽 사람 골격은 작은 키에 긴 팔뚝, 짧은 다리, 넓은 얼굴, 두드러진 안면 골격을 보이는데 반해, 한반도에서 건너온 사람들 골격은 키가 크고 날씬하며, 긴 얼굴에, 눈들은 모아져 있고, 눈 두덩이 빠와 코가 크게 튀어나오지 않았다. Hudson (1999:

인류학적으로 분석하면, 5세기에 한반도로부터 수많은 이주민을 직접 받은 기내(畿内) 지역을 제외하고는, 큐슈에서 동쪽으로 가면 갈수록 골격 유전인자에 미친 대륙의 영향이 급격하게 감소한다.”⁵

Diamond(1998)는 “야요이 시대 사람들 골격 중에는 여전히 조몽 사람들과 유사한 형태가 발견되지만, 고분시대에 와서는 아이누를 제외하고는 모든 일본인의 골격이 현대 일본인-한국인과 유사한 형태로 단일화되었다”고 말한다.⁶ 야요이 600년 기간 중에 아이누, 말라요-폴리네시아, 가야 사람들이 어울려서 형성한 원 일본인을 왜인(倭人)이라 부른다면, 후기 고분시대에 이들 원 일본인과 백제에서 새로 건너온 사람들이 합쳐져서 형성된 사람들 “야마도인”이라 부를 수 있다. 야마도 사람들은 야요이 원 일본인보다 한반도 사람들과의 유전적 유사성이 훨씬 커졌고, 그들이 바로 현대 일본인의 선조인 것이다.

터어키어, 몽골어, 만주어 등을 포함하는 소위 “알타이 계통” 언어들은, 아득한 옛날에 한 개의 공통 조어(祖語)로부터 분리되어 서로 다르게 변화를 해 온, 친족 관계의 언어들이라고 믿어진다. 알타이 어족 사이에는 아주 두드러진 구조적 공통점이 존재한다. 가장 중요한 공통 특징을 들라면, 모음조화와 문법적 교착성(膠着性)이다. 즉, 한 단어 안의 모음이 동화 현상을 보인다. 또 모든 단어의 파생과 되틀림은 각기 단일 기능을 가진 접미사에 의하여 규칙적으로 이루어진다. 알타이 조어에서는 모든 문장이 동명사를 포함한 명사들로만 이루어 졌을 것으로 믿어진다. 인도-유럽어족에서는 모음 교체나, 자음 교체가 문법적 기능을 가진다. 인도-유럽어족에서는 보통 두 개의 동사가 접속사로 연결되지만, 알타이 어족에서는 (관계 대명사라는 것도 없고) 앞선 동사가 (예컨대 “먹으러”같이 “러”를 부쳐서) 부동사형을 취하여 뒤에 오는 동사와 연결이 된다.⁷

조몽시대 일본열도에서는 원시 일본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원시 한국어-일본어는 야요이 생산기술의 도입과 함께 들어온 것이며, 통구스어가 최초로 일본열도에 들어

68)을 참조.

⁵ Barnes (1993: 171, 176) 인용.

⁶ Kazumichi (2001: 24)는 “현대 일본인의 골격 형태는 이미 고분시대에 형성이 되어있었다. 고분시대 이후에는 일본인의 유전자 구조에 큰 변화가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⁷ 이기문 (1972: 12-15, 21) 참조.

온 시기는 바로 야요이 시대가 시작되는 시기였다.⁸ 원 일본어(原日本語)를 공유하는 원 일본인(原日本人)은 오랜 기간에 걸쳐, 비교적 평화스러운 유전적 융합과정을 거쳐서 야요이(300 BCE-300 CE) 기간 중에 형성되었다.⁹ 한국어와 일본어는 모두 알타이어의 범-통구스 계통에 속하지만, 어휘나 음운 측면에서는 일본어가 아이누와 말라요-폴리네시아 언어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왜인 vs. 야마도인

Janhunen(1996: 231)은 “일본어의 궁극적인 고향은 한국, 보다 정확하게는 한반도의 남부 (가야), 서부 (백제), 중부 (고구려)”라고 말한다. 비록 원 일본어가 어휘나 음운적으로 아이누와 말라요-폴리네시아 언어의 영향을 상당히 받기는 했지만, 한국어의 가야 방언이 원 일본어의 근간이 되었다.

4세기 말, 백제 사람들이 일본열도로 건너 왔을 때, 통역이 있어야 의사 소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백제 정복자들이 야마도 지역에 도착했을 때, 야요이 원주민들과 큰 불편함이 없이 서로 의사 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은 상당히 많은 수의 어휘를 공유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백제 땅 자체에서도, 부여-고구려 계통의 백제 지배층은 왕을 “어라하”라 불렀고, 토착 마한 피 지배층은 왕을 “건길지”라고 불렀다. 하지만, 이들 사이에 의사 소통을 위해 통역이 필요했다는 기록은 한군데도 없다.

국립 국어연구원이 펴낸 표준 국어대사전에 실린 현대 한국어 단어는 30여 만 개나 된다. 하지만, 지구상의 어떤 사람이라도 사용빈도 상위 1,000개의 단어를 아는 것만으로 한국어의 75%를 이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¹⁰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내용의 대화가 드물고, 단순한 일상생활이 대화의 주 내용이라면, 사람들은 그저 1천 개 미만의 기초 단어(특히 명사와 동명사)만으로도 충분히 의사소통을 하며 함께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동일한 문법형태를 공유하는 어느 두 지역의 사람들이, 그 1천

⁸ Unger (2001: 81, 96) 인용.

⁹ Janhunen (1996: 201, 210)은 일본열도 언어의 알타이어로의 변화는 초기 형태의 한국어로부터 구조적인 영향을 받아 유도된 것 같다고 말한다. Horai and Omoto (1998: 40-42)와 Hudson (1999: 59-81)을 참조.

¹⁰ 金興圭, 姜汎模 (2000) 참조.

여 개 내외의 기초 단어 중, 절반 정도만이라도 같은 단어들을 사용한다면, 서로 만나 의사를 소통을 하는데 아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표정의 변화와 손짓 발짓으로 나머지 절반 정도의 의사 소통은 언제나 가능할 것이다.

야마도 왕국 지배계급의 공식 언어는 고구려-백제계의 한국어이었을 것이다. 고구려 어의 미에(水), 나(國), 탄(谷)과 나머르(鉛)는 각각 고대 일본어의 "미두," "나," "타니"와 "나마리"이다. 백제어의 고마(熊)와 키(城)는 고대 일본어의 "쿠마"와 "키"이다. 고대 일본어의 "나"가 1인칭 혹은 2인칭 대명사로 쓰였는데, 이것은 한국어의 "나" 혹은 "너"에 비교될 수 있다. 고대 일본어의 시마(島), 나타(鉞), 파타(田), 와타(海) 등은 각각 고대 한국어의 섬, 낚(鎌), 밭, 바닷 등에 해당한다.¹¹

일본서기에는 야마도 왕국의 지배자들이 백제, 심지어는 신라나 고구려에서 온 사람들을 대면했을 때에도 통역이 필요했다는 기록이 단 한군데도 없다. 일본서기에는 5세기 중엽 인교오(允恭)가 죽었을 때, 신라왕이 조문단을 보냈는데, 그들이 야마도 사람들 "풍속언어에 익숙하지 않아(未習風俗之言語)" 오해가 발생하여 문제를 일으켰다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은, 당시 "풍속 언어에 익숙하기만 하면" 신라와 야마도 사람들이 편하게 의사 소통을 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¹² 반면, 중국 조정에 사신을 보낼 때에는 통역(譯語)이 수행한 사실을 대부분 경우 일본서기가 분명하게 기록을 한다.

Unger(2001)에 의하면, 정복에 의했건, 폭 넓은 접촉에 의했건 간에, "야요이 시대 로부터 고분시대로의 전환"은 일본 말의 중요한 언어학적 변화를 초래했다. 즉, 일본어의 통구스어[고구려-백제를 의미]와의 유사성이 커지는 것이다. Unger에 의하면, "소수의 흔히 쓰이지 않는, 혹은 어의적으로 좁은 뜻의 일본말 어휘들은 "한국"어 ["가야"를 의미] 어근(語根)들을 갖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광범한 의미로 쓰이는 유의어(類義語)들은 흔히 고구려, 백제 또는 통구스어 어근을 가지고 있다."¹³

¹¹ 이기문 (1972: 23, 25, 34-38) 참조.

¹² 允恭 四十二年 天皇崩 於是 新羅王聞天皇既崩...遂參會於殯宮也 冬十一月 新羅弔使等 喪禮既闕而還之 爰新羅人恒愛京城傍耳成山訖傍山 則到琴引坂顧之曰 宇泥咩巴椰彌彌巴椰 是未習風俗之言語 故訛訖傍山謂宇泥咩 訛耳成山謂彌彌耳 (NI:449)

¹³ Unger(2001)는 原(원) 한국-일본어를 초기 남부 통구스어로 정의하고, 이로부터 진한-변한 방언과 야요이 일본 방언이 분리된다고 말한다. Unger는 야요이 시대의 원 한국-일본어(진한-변한어)는 범(凡) 통구스어로부터 아주 이른 시기에 떨어져 나온 것이기 때문에, 고분시대 초기에 이르면, 범 통

위서 동이전은 고구려 언어가 부여 언어와 동일하다고 말한다. 양서(梁書)는 백제 언어가 고구려 언어와 동일하다고 말한다.¹⁴ 일부 언어학자들은, 누가 보아도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가깝다는 사실을 근거로, 한국어와 일본어 사이의 병렬(並列)성, 유사성을 오로지 어휘의 대량 차용 현상만으로 설명하려 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언어학자들은 한국어와 일본어가 모두 알타이 계통 언어들이며, 옛 일본어와 부여-고구려-백제 언어 사이에는 명백한 계통관계가 있음을 강조한다.¹⁵

이기문(1972, 35-6)에 의하면, 알타이 계통 언어들에는 수사(數詞)를 공유하는 경우가 드문데도 불구하고 유독 고구려 어와 옛 일본 어는 놀랍게도 많은 양의 수사를 공유한다. 즉, 고구려 말의 밀(3), 우차(5), 난은(7), 덕(10) 등은 일본어의 미(3), 이쯔(5), 나나(7), 도오(10) 등과 일치한다. 이기문은 고구려 언어가 옛 일본어와 계통적으로 상당히 가까울 뿐만 아니라, 이 두 언어의 분리는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다.¹⁶

구스어로부터 뒤늦게 떨어져 나온 부여-고구려-백제 언어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믿는다. 어떤 셈인지 Unger는 가야-신라(변한-진한) 사람들만을 “한국인”으로 정의를 하고, 고구려-백제인은 (부여) 통구스인으로 정의한다. 고구려를 한국 역사에서 제거하고 한국인을 한반도 남부의 삼한 사람들로 한정시키려는 일본 학자들의 영향을 받은 때문인 것 같다.

¹⁴ 三國志 魏書 烏丸鮮卑東夷傳 高句麗傳...東夷舊語以爲夫餘別種 言語諸事多與夫餘同...挹婁傳 挹婁古肅慎之國也...其人形似夫餘言語不與夫餘句麗同
梁書 列傳 諸夷 百濟...今言語服章略與高麗同

¹⁵ Miller (1979)와 Levin (1981) 참조. Unger (2001)의 참고 문헌들도 참조. Levin(1976)은 도쿠가와 시대의 일본 학자들이 일본어를 한국어의 지류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¹⁶ 언어학자들에 의하면, 어떤 어휘는 아주 느린 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언어 학자들로 하여금 오래된 과거의 계통적 근친 관계를 식별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천년 이상을 떨어져서 제각기 진화를 하게 되면,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한 형태의 어휘들은 빠른 속도로 사라지게 된다. 위에서 언급한 4 개의 고구려 수사, 三 (密), 五 (千次), 七 (難隱), 十 (德) 등이 현대 일본어의 해당 수사들과 일치한다는 사실은 매우 놀랄 일이다. 대한 해협 건너 일본열도에서는 이 4 개의 수사가 전혀 변화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비대칭적인 변화 속도 때문에 오늘날의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조가 사용했던 어휘들을 알아들을 수가 없게 된 것이다. Levin(1976)은 “일본말은 고구려 말에 상당히 가까웠을 것이며, 그 핵심은 부여 어군(語群)에 속했거나, 최소한 부여어에 상당히 가까웠을 것”이라고 말한다.

왜 한국인과 일본인의 언어는 그들의 유전자만큼 유사하지 않는 것일까?

Diamond(1998)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한다: 일본인들이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한국으로부터 건너온 사람들의 후손이라면, 왜 한국인과 일본인의 언어는 그들의 유전자 만큼 유사하지 않는 것일까?

한국어와 일본어는 상당히 최근에 갈라졌다. 유전적인 유사성이 언어적인 거리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현대 한국어와 현대 일본어 사이에서 발견되는 명백한 어휘적, 음운적인 차이를 설명해야만 한다. 언어적 거리라는 수수께끼에 대한 쉽고 가능한 해답을, 부여-고구려-백제, 마한, 진한(신라), 변한(가야) 방언들이 어휘적으로 현저하게 달랐을 가능성에서 찾을 수도 있다. 하지만 삼국사기에는 한반도 내의 사람들이 의사 소통을 할 때 통역이 필요했다는 기록이 단 한군데도 없다. 통역은 중국인을 상대할 경우에만 필요했다. 사실 삼국사기에는 백제, 고구려, 신라, 가야 사람들 사이에 어떤 형태이건 언어적 문제가 있었다는 기록이 전혀 없다. 따라서, 일본열도에 야요이 시대를 전개한 가야 사람들의 방언과, 마한지역을 정복하고 나아가 일본열도에 야마토 왕국을 세운 백제 사람들의 방언과, 또 한반도를 통일하게 된 신라 사람들의 방언이 극복하지 못할 정도로 서로 달랐다고 구태여 가정을 해 가면서 현대 한국어와 현대 일본어 사이의 어휘적, 음운적인 차이를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¹⁷

한반도에서 일본열도로 건너가서 논농사를 지으며 야요이 시대를 전개한 (변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휘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한반도(변한 땅)에 남아서 계속 살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휘와 상당수 일치하지 않게 되었을 것이다. 당시 일본열도의 종족 구성과 (종족간의 충돌과 혼혈을 수반하는) 거주지 이동 측면을 살펴보더라도, 한반도에서 일본열도로 건너간 사람들이 구사하는 어휘와 음운(音韻) 규칙은, 당연히 아이누와 말라요-폴리네시아 사람들이 사용하던 어휘와 음운체계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¹⁸

Ono(1962)에 의하면, 일본어에 대한 말라요-폴리네시아의 언어학적인 영향으로

¹⁷ 아이누 말에는 호카이도, 사할린, 쿠릴 등 세가지 주요 방언이 있는데, 상호간 소통이 안 된다. Hudson (1999: 99) 참조. 한반도 내의 방언들 중 상호간 의사소통이 안 된 경우를 기록한 사례는 전혀 없다.

¹⁸ 음운이라는 것은 소리를 내고, 또 그 소리를 낼 때 울림을 만드는 것이다. 즉, 언어의 외형을 구성하는 높고 낮은 목소리와 억양-울림 등을 배합하는 현상이다.

신체 각 부분 명칭에 남방적 어휘가 남아있고, 모음조화 현상이 계속 쇠퇴해 9세기에 와서 사라져 버렸고, 또 일본어의 어휘들이 개구(開口) 음절로 끝을 맺게 되었다. 아이누 언어, 특히 말라요-폴리네시아 언어의 어휘적, 음운적 영향은 일본어의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야요이 600년 기간 중, (아이누와 말라요-폴리네시아 계통의) 조몽 원주민과 (예맥 통구스 계통의) 가야 사람들이 어울려서 원 일본인을 형성했다. 후기 고분 시대에 이들 원 일본인과 백제에서 새로 건너온 사람들이 합쳐져서 한반도 사람들과의 유전적 유사성이 훨씬 커졌다. 야요이 시대의 원 일본어는 한반도 남부의 가야 방언에 가까웠으나, 고분 시대 일본어는 부여-고구려-백제 방언에 가깝게 되었다. 현대 한국어와 현대 일본어 사이의 음운적, 어휘적 차이는, 한국어가 조오몽 기층언어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로 설명할 수 있다. 언어학적인 면에서 조오몽 원주민이 일본어 형성에 기여한 바는, 현대 일본인의 형성에서 그들이 끼친 유전적인 기여도[35% 내외]에 필적할 수 있다. 하지만 계통이 다른 언어들의 문법을 섞어서 함께 사용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아이누와 말라요-폴리네시아의 언어학적인 영향은 어휘와 음운적 요소에 집중되었다. 따라서 어휘와 음운 만을 본다면 한국인과 일본인의 언어는 그들의 유전자만큼 유사하지 않는 것이다.

4세기 말 이후, 백제 사람들이 야마도 왕국을 세우고, 일본어가 한국어의 문장 구조를 포함한 전반적인 문법체계를 좀더 조직적으로 완전하게 수용을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아이누와 말라요-폴리네시아 계통의 어휘들을 대량으로 빌려 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반면, 문법이라는 것은 아주 보수적이기 때문에 “차용” 현상이 거의 없다.

후기 고분시대 (400-700) 전기간에 걸쳐,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말하는 어휘의 발음을 모두 한자로 표기했었다. 1443년에 창제된 한글은, 많은 언어학자들이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체계(writing system)라고 말한다.¹⁹ 모음 10개로 8,778개의 발음을 표기해 낼 수 있으며, 음절과 발성 사이에 엄격한 1:1 대응관계를 유지한다.²⁰ 반면, 일본어 음절 표기법은 9세기경에 야마도 지역의 여성들 사회에 나타나

¹⁹ Crossley(1997: 37)는 “한글은 (음운론에 충실한) 진정한 의미의 표음 문자이며, 적은 수의 추상적 기호를 사용하여 한국 말의 발음을 표기한다. 한글이 동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독창적인 표음 문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지만, 실제로 한글은 서 아시아 셈족의 시리아 문자에서 유래한 위구르 문자를 원형으로 하는 거란의 표기법을 본떠서 만든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²⁰ 4만여 개의 한자는 단지 427개의 소리만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거의 노래를 부르

사용되었던 비 과학적 표기 방법을 답습하고 있다. 말라요-폴리네시아 언어의 특징인 최소 발성 전통에 따라 5개의 모음을 가지고 201개의 발음을 만들어 낸다. (폴리네시아 언어는 단지 3개의 모음--a, i, u--만을 가지고 있다.) 한국어와 일본어가 각기 채택한 표기 방식의 음운론적 차이는 어휘들의 발음을 빠른 속도로 이질화 시켰을 것이다. 일본어 표기의 발성 빈곤성은 (대부분의 어휘에서 나타나는) 모음의 발음을 빠른 속도로 변화시킬 수 밖에 없었다. 현대 일본 말은 1,600여 년 전의 야마도 사람들이 거의 알아들을 수가 없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완벽한 음운(音韻) 이론에 입각해서 한글이 창제된 반면, 일본은 비 과학적으로 한자를 차용한 가나(假名)를 가지고 계속해서 음절을 단순화 시켜 표기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경우에 그 어원을 쉽사리 추적하지 못할 정도로) 어휘의 상이성이 두드러지게 되었을 것이다.

현대 한국어는 본래 신라 방언인 중세 한국말에서 나온 것이다. 방언은 초기의 언어에서 파생되어 변형된 것으로 정의된다.²¹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언어에는 엄청난 음운적, 의미적(語義的) 변화가 발생하며, 언어들은 빠른 속도로 서로 알아들을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문법이라는 것은 보통 완만한 속도로 변화를 하기 때문에, 문법의 연구를 통해 고대의 언어학적인 연관관계를 구명할 수 있다.²² (날말) 어휘론이나 (소리) 음운

는 듯한 4성을 사용해야만 한다. 평균적으로 23개의 문자가 똑같은 음을 낸다. 음운학자들에게 암묵과 같은 영어는 애당초 음절과 발성 사이에 1:1 대응관계 자체를 거론할 처지가 아니다.

²¹ Miller (1996: 217) 참조.

²² 구문론적으로, 또 형태론적으로 볼 때, 한국어와 일본어의 동질성은 크게 강화되었다. 그러나 어휘적, 어의적, 음운론적 차이가 커짐에 따라 한반도 사람들과 일본열도 사람들은 급기야 통역이 없이는 의사 소통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문법이 거의 변하지 않는다 해도, 음운-어의(語義) 상의 변화는 빠른 속도로 의사 소통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단 몇 세기 동안만이라도 서로 떨어져 있게 되면, 헤어지기 이전의 말을 하는 사람과 의사소통이 안될 것이다. 일본서기에는, 한반도에서 백제가 멸망한지 18 년 밖에 지나지 않은 681 년에, 신라로부터 일본으로 야마도 말을 익히기 위해 (聒言者) 세 사람이 왔다는 기록이 있다. 속일본기에 의하면, 740 년에, 신라에서 말을 배우기 위해 (新羅學語) 한 사람이 왔으며, 760 년에는 신라 조정이 "야마도 조정에서 사용하는 풍속 언어를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無知聖朝風俗言語者)" 말을 배우라고 (學語) 두 사람을 보냈다. 일본고기의 812 년 기록은, 통역이 없이는 신라 사람과 의사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런 기록들을 보면, 늦어도 9 세기 초에 이르면 한반도 사람과 일본열도의 사람은 통역이 없이 서로

론적으로는 아니지만, (글의 짜임) 구문론적으로나, (낱말의 생김) 형태론적으로 보면, 현대 한국말과 현대 일본어는 지구상의 다른 어떤 언어와 보다도 유사하며, 어휘-대-어휘(형태소-대-형태소) 그대로 번역이 가능하다. 만약 신라 말과 부여-고구려-백제 말이 완전히 달랐다면, 이런 현상은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일본인은 한반도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의 이주 물결을 흡수한 후에야 비로서 오늘날의 신체적, 언어적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다. 일찍이 일본열도로 건너간 범 통구스 언어의 초기 분파(신라-가야 변종의 남 통구스 언어)는 조오몽 원주민 언어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고, 그 후 범 통구스 언어의 후기 분파(부여-고구려-백제 변종의 북 통구스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정복으로 야요이-고분 언어적 전환을 겪은 이후에야 비로서 현대 일본어로의 본격적 진화 과정에 진입하게 되었다.²³ 반면, 한반도에서는 신라가 고구려-백제-가야를 정복하여, 신라 변종의 남 통구스어가 언어적 통일을 이룩하고, 현대 한국어로의 본격적 진화과정이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현대 한국어와 현대 일본어 사이에는 많은 어휘적, 음운적인 차이가 발견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오히려 이와 같은 언어적 방향을 겪은 이 두 언어가 아직도 어휘-대-어휘 번역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기적이라 말할 수 있다.

형태적-구문적 유사성과 어휘적-음운적 상이성

일본후기(日本後紀)에 의하면, 812년에 신라 배 한 척이 대마도에 정박을 했고, 그 배에는 10여 명이 타고 있었는데 말이 통하지 않아(言語不通) 무슨 사정인지 알기가 힘이 들었다고 한다. 아무래도 해적선(賊船)인 것 같아, 야마도 조정에서는 사건의 진상을 캐기 위해, 신라어 통역(新羅譯語)을 뽑아 보냈다 한다. 815년에는 아에 대마도에 신라 말 통역을 두었다(置新羅譯語)는 기록이 나온다. 이 기록들을 보면, 아무리 늦게 잡아도 9세기 초에 들어 와서는 한반도 사람과 일본열도 사람이 서로의 말을 못 알아듣게 된 것 같다. 드디어 통역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풍속 언어”가 익숙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

직접적인 대화를 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언어상의 문제가 생기면 그 상황이 공식적으로 기록 된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²³ 원 일본어는 일본열도의 모든 방언이 파생되어 나온 공통 언어로 정의된다. 후에, 교토 방언으로 대표되는 야마도 지역의 말이 일본 사회에서 가장 권위가 높았기 때문에 일본열도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야요이 방언의 흔적은 규슈와 동북지역에서 발견된다. Hudson (1999: 94-95) 참조.

라, 아예 “언어가 불통”인 것이다.

고대 한국어는 4가지의 주요 방언이 있었던 것 같다. 즉, 경북지방의 신라 방언, 경남 지방의 가야 방언, 북한지방의 고구려 방언, 그리고 경기-충청-호남 지방의 백제 방언이다. 하지만 후자는 경기-충청의 초기 백제 방언과 호남 지방의 마한 방언으로 세분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7세기 후반, 한반도는 신라에 의해 통일이 되었고, 고대 신라 방언이 현대 한국어의 근간이 되었다.

기원전300년 경부터 변한 (가야) 사람들이 일본열도로 가지고 온 어휘들 자체도, 일본 땅에서 약 600년 간 논농사를 지으면서 상당한 변화를 겪었을 것이다. 상당수의 아이누, 말라요-폴리네시아 단어들도 차용되고, 음운 규칙과 억양에도 큰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일본서기를 보면, 백제 사람들이 4세기 후반에 야마토 땅에 건너왔을 때, 통역이 필요했다는 기록은 그 어느 한곳에도 없다. 하지만, 백제 멸망으로부터 150여 년이 지난 9세기 초, 특히 농민 출신의 사무라이들이 지배계급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는 10-11세기 무렵, 한반도와 일본열도에 사는 사람들이 구사하는 어휘들은 이미 통역이 없이는 전혀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단계에 도달했던 것 같다. 그로부터 다시 1천여 년이 경과한 21세기에 어떻게 될 것인가는, 현재 우리가 보는바 그대로이다.

현대 한국어가 사용하는 어휘들을 5세기 전후에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이 사용하던 어휘들과 비교를 해 본다면, 그 자체로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아예 한자로 대체되어 사라져버린 순수 한국말 어휘들도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현대 일본어가 사용하는 어휘들을 5세기 전후에 일본열도에 살던 사람들이 사용하던 어휘들과 비교를 해 본다면, 그 역시 엄청난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신라어 자료의 핵심이며, 남아있는 신라 문학의 거의 전부라 할 수 있는 향가(鄕歌)는, 삼국유사에 14개, 균여전에 11개가 실려 있다. 향찰(鄕札)로 표기된 이 향가들은, 한자를 이용해서 자기 말을 표기해 보려는 노력의 집대성인 것이다. 하지만 한국어 음절은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어야 제대로 표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한자를 가지고 그저 비슷하게 흥내를 내보려 해도, 그 표기 방법이 아주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요즘 아무도 아주 자신 있게 향가 내용을 현대 한국 말로 번역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음절구조를 비교적 단순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일본의 경우도, 고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시나 노래뿐만 아니라, 759년 이전의 장가, 단가를 모아놓은 만요오슈우(萬葉集) 역시, 아무도 자신 있게 번역을 하지 못한다.

한반도와 일본열도가 특정 시점에서, 동일한 어휘와 음운체계를 가지고 출발을

했다 해도, 세월이 천년, 2천년 흐르고, 생활 환경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면, 음운체계와 어휘도 조직적으로 변화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애당초 사용하던 어휘들의 본래의 형태와 사용법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하물며 한 쪽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아이누어와 말라요-폴리네시아어 차용 어휘를 가지고 출발을 했다면, 더욱 큰 상이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구문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현대 한국어와 현대 일본어의 문장구조는 거의 완벽하게 일치한다. 그 외의 일반적인 문법형태도 동일한 계통에 속한다. 고대 일본어에는 모음조화도 있었다. 아마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언어의 사이도, 이들보다 더 유사할 수가 없을 것이다. 현대 한국어는 신라 방언을 근간으로 형성된 중세 국어가 진화한 것이라 한다. 그런데 신라계 “한국어” 이건, 부여-고구려-백제계의 “일본어” 이건, 일반적인 문법체계는 필연적으로 모두 나름대로의 상이한 역사적 발전 환경을 반영하면서, 각자 독특한 “간소화” 과정을 밟아 왔다. 그런데도 문장구조(語順)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변함없이 양쪽이 완벽하게 일치한 상태를 2천여 년 가까이 지속했다. 즉, 양쪽의 문장구조에 변화가 있었다면, 아주 똑같은 방식의 변화만 있었다는 얘기다. 현대 한국어와 현대 일본어의 문장구조가 21세기라는 현재 시점에서 거의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은, 언어학적으로 보아, 기적에 가까운 현상인 것 같다.

Appendix 13. 야마도 왕국과 신라의 쇠퇴

야마도 왕국의 쇠퇴

야마도 왕국의 쇠퇴는, 800년경을 전후로 전 세계적 한발의 시작과 일치한다. 900년경에 이르자 국가 토지 소유제와 함께 야마도 정부의 권위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다. 농민들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무장을 했고, 주변의 영향력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뭉쳤다. 이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도태 과정을 거쳐 전문 싸움꾼으로 진화하여, 사무라이라고 불리는 전문적 무사계급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사무라이는 중세 일본의 새 지배자가 될 운명이었다. 4세기 말에 일본열도를 점령하여 야요이-고분 시대 쌀농사 농민들 위에 군림하기 시작 했던 백제 도래 지배층은, 농민 출신의 무사계급에게 지배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천황이라는 존재가 21세기 현재 까지도 상징적으로나마 지배자로 군림 할 수 있다는 사실은 기적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지배계급의 등장: 사무라이

소가 씨족이 제거되고, 645년의 다이카 가이신(大化改新)이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663년에 백제가 멸망하자, 야마도 조정은 예상되는 당 나라의 침입 통로를 황급히 요새화하는데 전력을 기울였고, 전국적인 군사적 동원체제를 갖추기 위해 율령제를 강화하였다.²⁴ 701년에 다이호(大寶) 율령이 포고되면서, 모든 국민은 중앙 집권화된 관료적 정부와 당 나라 식의 율령(律令)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모든 토지는 국가에 귀속 되고, 농민은 토지를 분배 받아 세금을 내며 부역을 바치게 되었다.

가바네(姓)를 가진 우지(氏) 지도자들이 관장하던 베민(部民)들은 자유인(公民)이 되어 국가의 직접적인 지배와 통제를 받게 되었다. 지배 씨족들은, 군대를 보유하면서 야마도 군주를 호위하거나 전쟁에 나가던 전통적인 권리를 빼앗겼지만, 중앙정부의 고위 관직 혹은 지방정부의 관리로서의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²⁵ (國造와 같은) 하급 지배층은 지방 관청의 관리가 되었던 것이다. 정

²⁴ 645년, 나카노 오오에(天智 r.661-71) 왕자가 나카토미 가마다리(中臣鎌足 614-69)의 도움을 받아 소가 씨족을 제거하였다. 가마다리의 아들 후지와라 후비토(659-720)는 다이카 가이신을 실행하고자 노력했으며, 날로 늘어나는 관료 조직을 수용하기 위해 개국 이래 최초로 영구적 수도를 세울 생각을 했다. 지토오(持統 r.686-97)는 694년에 후지와라교(藤原京)로 옮길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소위 “영구적 수도”로 옮긴지 불과 16년 만에, 후비토는 다시 수도를 후지와라교에서 북쪽으로 16킬로 떨어진 헤이조교(平城京)로 옮기기로 결정하였다. 710년 이전까지 야마도 왕국은 영구적인 수도가 없이, 새로 왕이 즉위 할 때 마다, 마치 유목민들이 천막을 접고 이동하듯, 아스카 지역 내 다른 장소에 왕궁을 새로 짓고 도읍을 옮겼다. 이런 식으로 옮겨 다니니, 왕궁이나 도읍의 규모가 클 수가 없었다. 역사학자들은 이와 같이 유별난 야마도 왕국 특징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²⁵ 농민들은 국가에 의해 바로 징집되어 (3년간) 자기 고향 땅에서 지방 관리의 지휘를 받거나, 수

부 관료들은 신분과 지위, 공적에 따라 식음을 받았다. 하지만 야마도 조정은 제한된 규모로나마 당나라 식의 과거제도를 채택해 본적이 없으며, 세습적인 귀족 사회를 계속 유지했다.

당 나라로부터 수입을 해 온 율령제는 근본적으로 씨족제도에 바탕을 둔 일본 사회에 맞지 않았다. 특히 안록산의 난(755-63) 이후, 한반도-일본열도에 대한 당 나라의 직접적인 위협이 완전히 사라지자, 야마도 지배자들은 율령제를 집행할 열의를 잃었다. 기울어가는 당 나라 조정과의 외교적인 접촉도 838년 이후에는 단절되었다.²⁶

헤이안 시대(794-1192)가 시작되자, 일찍이 다이카 가이신을 실행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던 후지와라 (이전의 나카토미) 씨족은, 왕실과의 외척관계를 강화시키고, 858년에는 왕족이 아닌 신분으로 최초로 섭정에 올라 사실상의 왕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였으며, 중앙정부의 고위직을 독점하였다. 중앙의 중하위 직과 지방정부의 관직은 다른 중소 귀족들이 세습적으로 차지하였다.

9세기 중, 수도와 지방에서 귀족 씨족들과 사찰들은 장원(莊園)을 만들기 시작했고, 10세기에 와서는 국가 토지 소유제와 함께 중앙정부의 권위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다.²⁷ 장원의 소유자와 강력한 귀족 및 중요한 사찰의 승려들은 지방의 유력한 가문의 사람들과 농민들을 지방의 관리로 임명하였다.²⁸

사유 토지의 확산은 국가의 세수를 격감시켜, 야마도 왕실은 직할 토지에서 나오는 수입에만 의존하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전국적인 법 질서의 붕괴를 초래하였다. 10세기 초, 혼란과 폭력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중소 규모의 농민들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무장을 하기 시작하고, 그들 주변의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뭉쳤다.²⁹ 농민들은 귀

도, 전방, 혹은 (조정에서 일시적으로 군사적 임무를 부여 받은 귀족들의 지휘를 받으며) 주요 전쟁에 참여하였다. 다이카 가이신 이전에는 모노노베, 오오토모 같은 씨족이 왕의 군대를 직접 지휘했으나, 군사적인 권력과 비 군사적인 권력은 마침내 지방 행정 단위에서부터 분리 되었다.

²⁶ 784년에는 헤이조교에서 나가오카교(長岡京)로 수도를 옮겼고, 10년 후, 794년에 다시 헤이안교(平安京)로 수도를 옮겼는데, 이 천도들은 800년경을 전후하여 전 세계적으로 한발이 시작되는 시점과 일치한다.

²⁷ 조정의 귀족들은 지방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자신들의 이름을 빌어 면세 혜택을 받도록 해 주고, 그 대가로 생산물의 일부를 받아들였다. 후지와라 씨족은 가장 큰 규모로 장원 소유 권한을 보유했었다. 결과적으로, 국가적인 호구의 등록과 농지의 배분이 중단되고, 국유지는 모두 개인 소유지로 흡수되었다.

²⁸ “중앙에 의한 지방의 통제라는 것은 애초부터 미약했던 것이었지만, 9세기와 10세기에 이르러서는 당 나라에서 수입한 토지-조세 제도를 조롱거리로 만든 호족들에게 통제권을 완전히 빼앗겼다.” Tsunoda (1958: 109) 인용. 중세 (12-16세기) 일본의 봉건적 특징은 헤이안 시대(794-1192)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²⁹ Sansom (1963: 236) 참조. 일찍이 792년에 야마도 조정은 이미 농민을 징집하는 정책을 포기하였고, 지방 단위의 관리가 민병대를 조직하여 각 지방의 치안을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고통 받는 백

족 부재 지주보다는, 귀족 출신을 자처하는 지방 토착의 실력자를 선호하였다. 한편, 거대한 장원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병(私兵)을 유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9세기 말에는 정부의 이름을 빙자한 사적인 세력들의 지휘를 받은 사병들에 의해서 국가의 병역 의무 대부분이 수행되었고, 또 914년경에 와서는, 게이비시(지방 경찰관)의 직책도 모두 지방의 농민들이 담당하게 되었다.”³⁰ “특히 수도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는, 거의 모든 농부 하나하나가 무사 노릇을 하는 것이 당연시 되었다.”³¹

싸움에 동원된 농민들은 일단 싸움이 끝나면 그들의 농토로 돌아왔다.³² 그러나 이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도태 과정을 거쳐 전문 싸움꾼으로 진화하여, 사무라이라고 불리는 전문적 무사 계급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사무라이는 중세 일본의 지배자가 될 운명이었다. 유교적인 과거제도 대신에, 무술에 바탕을 둔 능력주의 사회로 진화된 것이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같은 비천한 계층의 출신이거나,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같이 출신이 애매모호한 사람도, 싸움꾼이라는 똑같은 위치에서 출발을 했다. 개개인의 두뇌와 칼 솜씨를 기준으로 하는 평등 사회가 된 것이다. 불가사의하다면, 이 농민 출신 무사들이 자신의 절대적 힘을 인식하는데 왜 그리도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하는 점뿐이다.

중앙 정부에서 고위직을 얻지 못하고 지방으로 내려와 정착을 하게 된 지방의 강력한 씨족들은 농민 출신 무사들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마 병력을 유지했고, 농민들을 칼잡이와 활잡이로 썼다. 왕족 후손인 미나모토(源) 씨족과 다이라(平) 씨족은 농민 무사들이 가장 많이 모여든 두 개의 집결지가 되었다.³³ 왕족 출신 지도자들은 농민 출신 싸움꾼들의 무력을 합법화

성들은 종교에서 위안을 찾으려 했고, 불교 지도자들은 백성들 마음에 안식처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Friday (1992: 4) 참조.

³⁰ Friday (1992: 174-5, 139) 인용.

³¹ Sansom (1963: 239) 인용.

³² “10세기 일본의 농민들은 너무나 자유롭게 움직였기 때문에 우두머리의 경제적 사회적 역할에 별로 의존하지 않았다. 무사들은 제 좋은 대로 오고 갈 자유가 있었다.” Farris (1992: 150-2, 375) 인용. 농민 병사들은 약간의 땅을 경작하였으나, 근본적으로는 도둑질과 약탈에 의존하여 삶을 유지하였다.

³³ 5-6 세대가 지나면서도 왕을 배출하지 못한 왕족의 후손들은 왕실로부터 분가되어 다른 귀족들처럼 성(姓)을 하사 받았다. 왕실은 성이 없었다. 814년, 사가(嵯峨 r.809-23) 왕은 자식들 50명 중 33명을 분가(分家)시켜 미나모토(源)라는 성을 내려주었다. 본래의 사가 겐지(源氏) 이외에도 세이와(清和 r.858-76), 우다(宇多 r.887-97) 왕 등을 원조로 하는 미나모토 씨족들이 있다. 가마쿠라 막부를 세운 미나모토 요리토모와 무로마치(室町) 막부를 세운 아시카가 다카우지(足利尊氏)도 세이와 겐지의 분파(分派)이다. 825년, 간무(桓武) 왕은 손자에게 다이라(平)라는 성을 하사해 분가 시켰다. 그 후, 분가한 왕족들의 성씨는 모두 미나모토 아니면 다이라 이었다. 간무의 증손자도 다이라 성을 하사 받았으며, 그의 후손들은 무사로서의 명성을 날렸다. 미나모토 요리토모

시켜 주었다. 그래도 12세기 말까지는, 무사들이 국가와 조정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사무라이(侍)”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武士가 아니라) “받들어 모시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농민 무사들의 우두머리들은 정치적으로 순진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권력구조 밖에 있었다. 조정의 귀족들은 자신들의 저택을 사병을 가지고 지켰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 무사들을 이간질해 서로 적대시하도록 만드는 방법으로 조종을 하였다.”³⁴

12세기 중엽, 다이라 씨족이 정권을 장악하고 (1156-60) 중앙정부의 고위직을 모두 독점 하였으나, 곧이어 1185년에 미나모토 씨족에 의해 축출되었다. 미나모토 요리토모(源頼朝)는 동쪽 해안가에 가마쿠라 막부(鎌倉幕府 1192-1333)를 창설했다. 하지만 조정에서도 계속 지방관리를 임명하고, 장원의 소유자들도 그 지역 관리들을 임명하고, 쇼군(將軍)도 자신의 가신들은 지방의 관리로 임명을 했기 때문에, 아주 복잡하지 짝이 없는 봉건제도가 출현한 것이다.³⁵

왕족 출신이라는 사무라이 지도자 아시카가 다카우지는 무로마치 막부(1333-1573)를 세우고, 봉건 다이묘(大名)들로 하여금 각 지방을 다스리게 했다. 사무라이와 농민들은 자치적 지방 조직을 만들었고, 다이묘들은 이들 다양한 자치 조직들을 자신들의 정치체제에 흡수하고, 지역 무사들을 주군-봉신(封臣) 관계에 기초한 군대로 조직하려고 노력했다.³⁶

일본열도를 점령하여 야요이-고분 시대의 쌀농사 농민들 위에 군림했던 백제 도래 지배층은 마침내 농민 출신의 무사계급에게 실질적인 지배력을 상실한 것이다.

신라 왕조의 멸망

한반도의 3국은 초기의 다원적 조직체로부터 왕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귀족국가로 진화했다. 부족 혹은 씨족의 우두머리들은 계급적인 관료체제 내에서 적절한 직위를 얻게 되었다. 군대는 최고 사령관인 왕의 지휘 아래로 이전되었고, 왕이 순수 군대를 이끌고 전장에 나가 직접 싸우는 경우가 많았다. 국가 중대사의 대부분은 고위 귀족들의 협의회에서 결정되었다. 각 지방에

사후에 막부를 장악했던 호조 가문도 다이라 출신이라고 주장했다. 도쿠가와 가문은 그들의 선조를 미나모토 계열로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다.

³⁴ Farris (1992: 176) 인용.

³⁵ 비록 조정의 귀족들은 계속 사무라이들과 권력과 영향력을 놓고 경쟁을 했지만, 가마쿠라에 군사 정권 수립으로 야마토 조정에 의한 실질적 통치는 사실상 끝이 난 것이었다. 세습 귀족적 야마토 조정의 몰락으로 새로운 지배층이 무대에 등장하였으며, 국가 운영에 지방민의 참여가 한층 커졌다. 군사 정권은 그 형태만 약간씩 바뀌면서 19세기까지 지속되었다. Tsunoda, et al. (1958: 181) 참조.

³⁶ 봉건 영주인 오다 노부나가 1572년에 무로마치 막부를 축출했으나, 그 자신도 1582년에 부하인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살해당하였다. 1590년의 일본열도 통일은 조선 침략(1592-8)으로 이어졌다. 노부나가와 히데요시가 도입한 사회조직을 기반으로, 에도(江戸)에 근거지를 둔 다이묘가 세운 도쿠가와 막부(1603-1868)는, 일본열도에 264년에 걸친 (무사계급이 농민, 수공업자, 상인들을 지배하는) 안정적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다.

성채를 세웠으며, 성주들은 지방 장관인 동시에 군 지휘관의 역할을 수행했다. 정부 관직과 군 지휘권을 보유하는 귀족들은 많은 토지와 포로-노예들을 보상으로 받았다.

신라는 당나라 식의 과거제도를 채택한 적이 없었고, 시종 세습적인 귀족사회였다. 성골과 진골이 왕위와 고위 관직을 독점하였다.³⁷ 각 지역에는 (옷깃의 색깔로 식별하는) 정(停) 혹은 당(幢)이라는 명칭의 군 부대가 조직되어, 진골 장수의 지휘를 받았다. 지방에는 자신들 지휘관에게 충성을 서약하는 서당(誓幢)도 있었다.

8세기 중엽, 통일 신라의 문화와 예술은 그 절정기에 달한 것 같이 보였다. 하지만 바로 그 이면에서는 지배 귀족과 왕족들 사이의 권력 투쟁이 심화되어 왕국은 쇠락과 멸망의 길을 걷고 있었다.

한반도가 몇 개의 왕국으로 갈라져 끊임없이 정복이나 생존을 위해 서로 싸울 때에는, 각 나라의 지배자들은 즉각적인 전국적 동원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전제적 권력을 유지해야 할 뿐 아니라, 농민들의 애국적 충성심을 공고히 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제도적인 장치를 유지해야만 했다. 하지만 일단 통일이 달성되자, 중앙집권적 귀족체제는 바로 농민을 착취하는 잔혹한 수단으로 퇴화하기 시작했다. 야심적인 귀족들은 노예를 무장시키고 유랑 농민을 모아 들여, 자기 개인의 군대를 만들었다. 공개적 왕위 쟁탈전이 일어났고, 신라의 마지막 155년 (780-935) 기간 중에는 무려 20명의 왕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왕위 경쟁자들은 종종 지역의 우두머리들과 연합을 했다. 지방 성주들 일부는 중앙의 귀족 출신이었으나, 신라 말기에 와서는 지방 토착의 우두머리들이 수도에서 파견한 지방 관리의 자리를 빼앗아 스스로 성주가 되었다.³⁸

최초의 대규모 농민 반란은 889년에 일어났으며, 전국적으로 반란이 이어졌다. 가난한 농민 출신의 지도자 한 명과, 왕궁에서 쫓겨난 왕자 한 명이 마침내 농민 반란 세력들을 규합하여 892년에는 후백제를, 901년에는 후 고구려를 각각 세웠다. 한반도의 후삼국 시대(892-936)는 중국 본토에서의 5대10국 시대(907-60)와 대충 일치한다.

왕건은 개성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해상 무역에 종사해왔던 강력한 토착 세력 출신이었다. 왕건은 후고구려의 장수로 시작을 해서, 주변 장수들의 추대로 왕위에 올라, 고려 왕조(918-1392)를 창건했다. 935년에는 신라 왕의 항복을 받고, 936년에는 후백제를 멸망시켰다.³⁹ 고려는 젊고 강건한 농민들을 선별하여 세습적인 병호(兵戶)를 구성하고, 농지뿐 아니라, 2개의 가구를 부속시켜 주어 병

³⁷ 진골 왕족의 바로 아래 위치한 6두품(頭品)은 왕족들에 의해 관직에서의 승진을 제한 받았다. 6품에서 4품까지의 귀족은 하위직만을 차지할 수 있었다. 3품에서 1품은 평민을 가리킨다. 골품제도는 품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의복, 수레, 일상 집기의 종류와 식솔의 숫자까지 규제를 하였다. 진골 협의회는 왕위 계승과 전쟁 선포 등을 결정하였다.

³⁸ 그들은 지방 백성들과 농토가 없어 떠도는 유랑자들을 모집하여 자신들 개인의 군대를 만들어 지휘를 하고, 농민들로부터 세금과 노역을 징수했다. 결국에 가서는 왕족이 아닌 귀족들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혼란기의 시작은, 800년경을 전후로 하는 전세계적 한발의 시작과 일치한다.

³⁹ 왕건과 그의 뒤를 바로 이은 후계자들은, 사회 전체를 제도적으로 재조직하여, 보다 공평한 토지-조세 제도를 도입하고, 많은 수의 노예를 해방시켜, 평민들의 비참한 처지를 개선시켜 주었다.

호의 토지를 경작하게 하였다.

왕건은 골품제도를 해체하고, 다양한 씨족들로부터 세습적 귀족계급을 구성했다.⁴⁰ 고려 왕조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관리들을 선발하기 위해 중국식의 과거제도를 도입했으며, 정교한 중국식 정부조직을 제도화하였다. 하지만 귀족 가문이 계속 정치 권력을 독차지했다. 그들은 정부의 고위 관직을 독점하였고, 그들의 딸들을 왕과 결혼시켰으며, 거대한 부를 축적하였고, 교육 기관을 지배하였다. 비록 과거제도를 통해 선발된 관리들이 고려 왕조 말기에 와서 전통적 귀족계급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되지만, 고려 역시 본질적으로는 세습 귀족사회였다.

왕건은 자기 자신을 고구려 왕조의 후계자라고 생각하여, 발해가 926년에 거란(907-1125)에게 망하자, 발해의 마지막 태자와 지배계층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5만 명 이상의 발해 귀족들이 고려로 피신하였으며, 왕건은 발해 태자를 공식적으로 고려 왕족에 포함시켰다. 관리, 기술자, 농민들을 포함하는 발해 피난민들의 물결은 10세기 내내 지속되었다. 발해의 지배를 받아왔던 대부분의 여진족은 발해가 거란에게 망하자 고려를 그들의 종주국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동아시아 역사: 왜곡(歪曲)의 시정(是正) © 2012 홍원탁 (洪元후) 서울대 명예교수 (<http://www.HongWontack.com>)

⁴⁰ 왕건은 강력한 지방 성주들에게 왕의 성(王姓)을 하사해 주고, 수많은 지방 씨족의 지도자들과 혼인을 통한 연맹을 형성 해, 6 명의 왕비와 23 명의 처를 두었다. 그는 신라의 마지막 왕과도 각자의 딸과 서로 혼인을 함으로서 겹사돈 관계를 맺었다.